목포수협 돈선거 수사 '시간 싸움'

남은 시효 2주 뿐 … 선관위 돈 건넨 4명 검찰 고발·경찰 곳곳 압수수색

"또 선거 치러야하나" 조합원·직원 침통

지난해 9월 목포수협장 보궐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광주일보 3월2일 1면〉됨에 따라 수사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돈 선거'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치러진 목포수협장 선거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의 실체 파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돈 선거' 정황 연일 확대=전남경찰청은 이날 목포수협에 형사들을 급파해 조합장실과 상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과 전날 자수한 금품 수수 조합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금품 살포 경위와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날 자수한 조합원 3명 이외에 또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이번 수협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도선관위도 이번 보궐선거의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전날 자수한 조합원 3명이 자신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한 관련자 4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목포수협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20만~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 선거' 의혹 사실로=경찰이 이날 수협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선관위가 금품을 제공한 4명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목포수협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또 선관위 측에서 자진 신고기간을 오는 5일까지로 연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683명의 목포수협 조합원들이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에 목포수협 조합원 중 가장 많은 1500여명이 가입된 무안지역의 조합원들은 연장된 자수기한을 놓고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지역 조합원 P씨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어차피 자수자가 나온 이상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자수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신고 기한이 나흘 남았는데 추가 자수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목포수협 직원들도 '돈 선거'의 실체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김모(62) 전 수협장이 수뢰 혐의로 '도중하차' 한 데 이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다시 불법 선거 의혹이 불거져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전남에서 치러질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21차례나 돼 이번 사건을 불법조합장 선거 근절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라며 "조합장 관련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목포수협장 보궐선거에서 2억원이 넘는 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2일 조합원 2683명에게 자수 권유 서한문을 보내는 등 진위 파악에 나섰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 기자 sslee@

도로에도 '봄단장' 계속된 한파와 잦은 폭설로 도로 곳곳이 파손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용산동과 화순을 잇는 도로에서 광주시 건설과 직원들이 아스콘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립5·18 민주묘지 명칭 바뀔 듯

관리소, '현충원' 등 전국 국립묘지 호칭 추세 따라

5·18 민주묘지관리소(이하 5·18 묘지관리소)가 '국립 5·18 민주묘지' 명칭 변경 방안을 검토 중이다. 5·18 민주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2002년 7월 27일)된 지 9년 만이다.

2일 5·18묘지관리소에 따르면 전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추모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기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최근 5·18 묘지관리소는 지역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이 같은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 명칭은 '5·18 민중항쟁'과 '민주'라는 의미를 담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담긴 '묘지'라는 단어는 빠지게 될 전망이다.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국립묘지 대부분이 명칭을 '묘'에서 '원'으로 바꾸고 있는데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다.

현재 전국 8곳의 국립묘지 중 '묘지'라는 이름을 가진 국립묘지는 국립 서울현충원·국립 대전현충원·국립 이천호국원·국립 임실호국원·국립 영천호국원 5곳을 제외한 국립 5·18 민주묘지·국립 4·19 민주묘지·국립 3·15 민주묘지 등 3곳이다.

5·18 묘지관리소 이형주(53) 소장은 "이곳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배움의 장인 동시에 쉼터를 겸한 열린 추모공간이 돼야 한다"며 "명칭 변경사업은 5월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 5·18 민주묘지(9900㎡)에는 모두 627명의 5월 영령들이 안장돼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중단"

파업 86일째 … '대체 근로자' 충돌로 또 파행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이 85일째를 맞은 2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임시 차고지에서 '불법 대체근로자'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일부 차량의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150여명이 이날 새벽 4시30분께부터 임시 차고지로 쓰는 전주시 반월동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차량 운행에 나선 비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대체근로자인지를 확인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운행을 막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또 임시 차고지의 차량 245대 가운데 40여대가 운행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회사의 차고지에 발이 묶여 있는 버스를 포함해 전체 382대 가운데 정상 운행된 차량은 207대(운행률 54.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북도는 2일 "시내버스 운행률이 낮아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운행률은 행정 당국이 사업자 측에 제시한 운행률(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약속대로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지원할 예정이었던 1분기 보조금은 6억여원이다. 이 기간 20억원가량을 보조하는 전주시 역시 이달 말 지급 예정인 보조금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로스쿨 검사' 사법연수원생 집단행동

100~150명 입소식 불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42기 사법연수생 일부가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법연수원(김이수 원장)은 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연수원에서 42기 사법연수생 974명의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을 개최했으나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법무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행사에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로스쿨생의 검사 임용에 반대하는 연수생 100~150명은 입소식에 참가하지 않은채 연수원 기숙사 앞에 집합하는 방식의 단체행동으로 집단 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생들의 집단 입소식(임명장 수여식) 거부 사태와 관련해 경위파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5·18 총상' 김요한씨 숨져

5·18 당시 입은 총상 후유증을 겪던 5·18 유공자 김요한(5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오전 9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아파트에서 김씨가 안방 침대에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5·18 부상자회 회원인 김씨는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목에 총상을 입어 척추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5·18 체포불응' 옥고 이동계씨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2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하고 경찰관의 체포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이동계(53)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1980년 5월 광주서 시위를 벌이고, 같은 해 8월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며 소지한 권총을 꺼내 공포탄 2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여대생 성폭행 사건 범인 순천경찰, 8년만에 검거

순천경찰은 2일 순천 모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들을 성폭한 배모(30·순천시), 조모(30·순천시)씨 등 2명을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8년 전인 2003년 11월께 순천시내 모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당시 2학년이던 A양을 함께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찜질방서 돈 훔치고 동성 성추행?

쌍나팔

○…동성애자들이 자주 찾는다는 소문이 난 광주의 한 찜질방에 들렀다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모(37)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박모(28)씨의 손목에서 열쇠를 몰래 빼낸 뒤 옷장에서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전씨는 동성애자들이 자주 찾는 찜질방이라는 소문을 듣고 갔다가 돈을 훔쳤는데, 경찰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 /김호기자 kimho@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내집같은 편안함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시내 주요 거점이 10분 거리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 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객실요금 4만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이론)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이론)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직, 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9급 문제풀이 행정직/ 세무직/ 교육행정직/ 검찰직/ 교정직 /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 검찰직 강의시간 : 09:00~19:20 (2개월 완성) /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강!
9급 야간반 강의시간 : 19:00~22:00 (3개월 완성) /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농업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어, 국사, 행정학, 행정법, 국어, 헌법, 회계학, 경제학, 교육학 /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호남유일 소방직(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개강 매월 1일